

# 강소성 무석시 개요 및 투자환경

(14. 3. )

상해사무소

## 1 일반 개요

- (위 치) 무석(중국어 명칭: 우시)은 상해에서 서쪽으로 128km, 강소성의 동남쪽에 위치. 북쪽으로는 장강, 남쪽으로는 태호(太湖)를 접하고 있음
- (면 적) 4,627.5km<sup>2</sup>(서울의 약 7.6배)
- (인 구) 643.22만명('13년)
- (행정지역) 2개 시(강음(江陰), 이싱(宜興)), 7개구(區) 포함
- (교 통) 장강을 통해 동중국해로 물류 이동이 가능하며, 고속철도, 고속도로 등 교통이 발달
  - 철도 : 고속철도 이용시 상해에서 28분 소요
  - 항공 : 도쿄, 오사카, 방콕, 홍콩, 마카오, 대만, 제주 등으로 가는 국제 항공편이 있으며 우리나라 청주와의 직항도 '14년중 개설 추진중
  - 해상물류 : 중국 국가 1급 항구인 장인항(江陰港)을 출발, 동중국해를 거쳐 부산, 싱가포르, 홍콩 등으로 물류이동 가능
  - 시내교통 : 지하철은 '14. 6월 1, 2호선이 개통되고 향후 5호선까지 건설될 예정



## 2 주요 경제지표

- 무석의 '13년 GDP는 8,070억 위안(약 1,323억 달러)이며, 1인당 GDP는 20,154달러로 중국내 2위. 외국인 투자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추세
- 최저임금의 경우 '13년 1,480위안\*(약 242달러)으로 중국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

\* '13년 상해의 최저임금은 1,620위안 수준

	단위	'10년	'11년	'12년	'13년
GDP	억위안	5,758.30	6,880.15	7,568.15	8,070.18
1인당GDP	달러	13,000	17,000	18,700	20,154
인구	만 명	466.56	467.96	470.07	n.a.
외국인투자금액	억달러	33.00	35.05	40.10	33.39
수출액	억달러	362.72	423.1	413.14	411.49
수입액	억달러	249.51	301.4	294.61	292.24
고정자산투자액	억위안	2,985.65	3,169.18	3,618.07	n.a.
최저임금	위안	960	1,140	1,320	1,480

[첨부: 무석시의 주요 경제지표] 참조

## 3 주요 산업 및 진출기업

### (1) 주요 산업 및 진출 기업

- 무석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보다는 장치산업, IT, 신재생, 바이오, 소프트웨어, 창조산업 등이 발달해 있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는 지역으로,
  - 최근에는 금융리스, IT, 친환경 산업 등의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. 금융리스회사의 경우 현재 무석에 6개 외국계 회사가 영업중이며 한국의 IBK캐피탈이 금융리스회사 설립관련 조사를 진행
- 포춘 500기업 중 85개 기업이 154개 회사 설립('12년 기준)
  - 주요 진출 한국기업으로는 SK하이닉스, GS에너지, 두산, LG Hausys 등임. 주요 외국기업은 Dupont, Microsoft, 화이자, 바이엘, BP, 델파이, 브리지스톤, 도시바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 유수 대기업들이 투자

- 주로 대만, 일본계 기업 많으며, 대만계 기업의 경우 중국 진출시 상해로의 투자를 제한하여 무석으로 투자를 많이 실시
- 무석지역 당행 여신 건수는 16건, 잔액은 116.5백만 달러로('14. 2월 기준), 주로 기계, 전기전자, 반도체,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체임

## (2) 각 산업별 현황

### □ (반도체 산업) 중국의 주요 반도체 생산기지

- 무석은 중국 2위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중국 반도체 산업의 25%를 차지('12년 기준)하며, 집적회로 생산액은 중국 1위임. SK하이닉스도 무석에 증설을 위한 대규모 투자 실시

### □ (신재생에너지 산업) 중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클러스터

- 무석은 중국 및 세계 태양광산업 관련 주요 생산기지 중 하나로, '13년 파산한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생산업체인 선택(Suntech)\*이 무석시의 지원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임.

\* 선택은 무석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적 태양광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태양광 경기 불황 등으로 '13년 파산하여 현재 무석시 정부 지방정부 산하의 우시귀렌 발전유한공사로부터 1.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아 회생절차에 들어갈 예정

-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으로는 Suntech, Konca, Hareon, Jetion, AKCOME, Maji 등이 있어 가치사슬상 전후방 산업이 완성되어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
- 풍력은 Envision, 국전연합동력, 천기풍력발전부품, JIXIN풍력 등의 기업이 있음

### □ (창조산업) 영화, 애니메이션 등 산업이 발달

- 무석 국가급 공업디자인 단지과 국가디지털 영화 산업단지, 대규모 세트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, 산업디자인, 영화, TV, 디지털출판, 애니메이션, 게임, 연예오락 등 창조산업관련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음

### □ (바이오 산업)

- 화이자, 바이엘 등 주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, 총 400여개의 바이오 및 의약 제조업체들이 입지하여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

### □ (소프트웨어 산업)

- Neusoft, Pactera, iSoftStone 등 중국의 유명회사가 무석에 아웃소싱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, Microsoft, IBM, NEC 등 다국적 기업이 무석에 딜리버리센터(Delivery Center) 및 기술지원센터를 설립, 운영

## 3 투자환경

- 무석은 장강-동중국해를 통해 바다로 물류 이동이 가능한 항구를 접하고 있으며, 상해 등과 인접하여 철도, 도로 등의 물류 환경이 잘 갖추어진 도시임
- 많은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여 다양한 국제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등 외국인 생활환경은 양호. 한국인은 8,000여명이 주재하고 있으며, 한국학교도 설립되어 있음
- 무석은 '13년 1인당 GDP가 20,000달러를 초과하는 도시로 부동산 가격, 인건비, 물가 등은 타 도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, 노동 집약적 산업 보다는 반도체 등 장치집약적 산업, IT, 소프트웨어 산업, 서비스업 등의 기업이 진출이 유리. 또한, 이와 관련한 인력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
-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의 경우 무석시에 각 개발구/시정부내 투자유치 기구(초상국)와 직접 상담하기 보다는 무석시 직할 초상국을 통해 상담할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

[자료원 : 무석시 외국인투자유치국 면담 및 유관 사이트]

**참조****무석시 주요 통계**

## □ '13년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

(단위: 만달러)

순위	국 가	금 액	비 중	순위	국 가	금 액	비 중
1	홍 콩	168,583	50.36	6	네덜란드	7,534	2.26
2	싱가포르	34,996	10.48	7	룩셈부르크	5,400	1.62
3	일 본	34,241	10.26	8	독 일	4,759	1.43
4	대 만	10,886	3.26	9	한 국	2,183	0.65
5	미 국	9,372	2.81	10	프 랑 스	1,399	0.42

## □ '13년 산업별 외국인 투자('13년)

(단위: 만달러)

순위	산 업	금 액	비 중	순위	산 업	금 액	비 중
1	부동산개발	84,195	25.22	6	교통운수	16,809	5.03
2	기 계	50,625	15.16	7	도 소 매	15,934	4.77
3	경 공 업	35,550	10.65	8	제 약	14,815	4.40
4	전자통신	30,075	9.01	9	임 대 업	13,127	3.93
5	전기소재	26,179	7.84	10	의류방직	9,092	2.72

## □ 국가별 수출입('13년)

(단위: 만달러)

수 출				수 입			
순위	국 가	수출액	비중	순위	국 가	수출액	비중
1	미 국	609,054	14.8%	1	일 본	651,046	22.3%
2	홍 콩	465,300	11.3%	2	한 국	483,099	16.5%
3	일 본	439,495	10.7%	3	대 만	201,954	6.9%
4	한 국	332,204	8.1%	4	미 국	162,001	5.5%
5	독 일	169,911	4.1%	5	독 일	146,183	5.0%
6	네덜란드	121,186	2.9%	6	호 주	142,111	4.9%
7	싱가포르	119,322	2.9%	7	스웨덴	122,489	4.2%
8	대 만	116,733	2.8%	8	태 국	96,893	3.3%
9	인도네시아	110,996	2.7%	9	싱가포르	94,541	3.2%
10	태 국	92,598	2.3%	10	브라질	85,505	2.9%